'버닝' 아카데미상 외국어영화 예비후보

'버닝' (감독 이창동)이 한국영화 최초로 아카데미상 외국어영화 부문 예비 후보에 올랐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에 도전한지 55년만에 이룬 쾌거다. 한국영화는 지난 1963년 신상옥 감독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를 시작으로 계속 이 부문에 도전해왔으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비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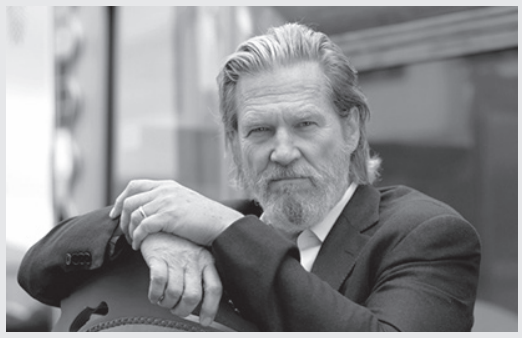
오스카상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The Academy of Motion Picture Arts and Sciences·AMPAS)는 17일 제91회 아카데미상 9개 부문 예비 후보를 발표했다. 외국어영화 부문에는 '버닝' 을 비롯해 일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 , 멕시코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로마' , 레바논 나딘 라바키 감독의 '가버나움' , 덴마크 구스타브 몰러 감독의 '더 길티' 등 9편이 올랐다.

올해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서 경합을 벌인 '버닝' 과 '어느 가족' 이 아카데미에서 다시 한번 맞붙게 된 셈이다. 칸영화제에서는 '어느 가족' 이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받았으며 '버닝' 은 국제비평가연맹상을 수상했다.

'버닝' 은 어린 시절 동네 친구인 종수(유아인)와 해미(전종서)가 우연히 만난 후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든 미스터리한 남자 벤(스티븐 연)으로 인해 혼란을 겪으며 파국으로 치닫는 이야기를 그렸다.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헛간을 태우다' 가 원작이다.

내년 1월 말 외국어영화 부문 최종 후보 5편이 정해지고, 2월 24일 열리는 시상식에서 수상작이 결정된다.

배우 제프 브리지스, 골든글로브 평생공로상



할리우드의 성격파 배우 제프 브리지스(69)가 골든글로브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7일 CNN에 따르면 내년 1월 6일 베벌리힐스 베벌리힐튼호텔에서 열리는 제76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브리지스는 특별상인 세실 B.데밀 평생공로상을 받는다. 이 행사는 한국계 캐나다 배우 샌드라 오가 진행자로 나설 예정이어서 한인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HFPA)의 메헤르 타트나 회장은 제프 브리지스를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장르에 걸친 브리지스의 빼어난 연기와 작품은 60년 넘게 전 세계 관객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았다." 면서 "그의 놀라우면서도 박애주의적인 공헌을 축하하고자 한다." 라고 말했다.

브리지스는 '피셔 킹' , '위대한 레보스키' , '스타맨' 등에서 열연했으며, 2010년 '크레이지 하트' 로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MXM, 미국 6개 도시 투어

아이돌 듀오 MXM이 미주 6개 지역 투어를 확정했다.

MXM은 내년 1월17일부터 미국 6개 도시를 순회하는 'MXM 1ST MEET & LIVE US TOUR' 를 개최한다.

MXM은 18일 MINNEAPOLIS에서의 첫 번째 공연을 시작으로, 20일 JERSEY CITY, 21일 ATLANTA, 23일 HOUSTON, 25일 LOS ANGELES를 거쳐 26일 SAN JOSE에서의 공연을 마지막으로 투어의 마침표를 찍는다.

이번 투어에서 MXM은 첫 데뷔곡인 'I' M THE ONE' 을 비롯해 두 번째 미니앨범 'MATCH UP' 의 타이틀곡 '다이아몬드걸' , 올해 8월에 발표한 첫 정규앨범 'MORE THAN EVER' 의 타이틀곡 'YAYAYA' 등 히트곡과 함께 미국 팬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

미국 공연의 주최사인 Studio PAV의 JAY LEE대표는 "MXM을 향한 미국 K-POP팬들의 공연 요청이 쇄도해 팬들이 보내준 뜨거운 러브콜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 미국 투어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며 "성공적인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MXM은 임영민(22)과 김동현(20)으로 이루어진 남성 듀오로, 팀명은 '모어 & 모어' 즉,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때 시너지를 내서 또 다른 색깔을 낸다' 는 의미와 '더 성장하겠다' 는 의미가 함께 담겼다.

1243호 숫자퍼즐 정답

2	9	4	7	1	5	8	3	6
7	1	8	9	6	3	4	2	5
3	5	6	2	4	8	7	9	1
8	2	7	1	5	4	3	6	9
4	3	5	6	9	2	1	7	8
9	6	1	3	8	7	2	5	4
5	7	9	4	2	1	6	8	3
6	4	2	8	3	9	5	1	7
1	8	3	5	7	6	9	4	2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오래 전에 60대의 부인과 부부(夫婦) 문제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필자가 부부의 사주를 보면서 부인에게 건넨 이야기는 "부인이 타고난 팔자는 재물복이 박한 팔자가 되지만 다행인 것은 남편분이 살아온 젊은 날의 운의 흐름이 그래도 재물운이 따르는 흐름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남편은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라고 말을 한다. 이어서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그런데 지금 두 분께서 지나고 있는 대운(大運)의 흐름이 각자 남편은 홀아비 그리고 부인께서는 과부와 같은 심리 상태로 지내는 운로를 지나고 있으니 서로 간에 불협화음(不協和音)이 많이 생기는 흐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남편하고 완전히 남남처럼 지낸지 오래 되었는데 남편하고 한 집에서 지내는 것도 힘이 듭니다."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그것은 남편만의 탓이 아니라 부인이 현재 지나고 있는 운(運)의 흐름이 서로를 무정(無情)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부인께서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보통 사람들보다 매우 높은 편이므로 마음 속에 바라는 바가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나고 상처를 받기가 쉬운 타입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비우고 남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어야 합니다. 부인께서 지금의 모든 번민을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팔자 탓이요 운의 흐름 탓이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참을 일도 없으니 화날 일도 없는 것이지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인께서 마음을 다잡는 표정으로 필자의 말을 이해했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여기 오기 전에는 굉장히 답답한 심정으로 찾아왔는데 원장님과 상담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 집니다."라고 말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한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 사주명리(四柱命理) 수강생 모집 ★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예약 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 역학 학술원